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구름 많음 26/33℃ 8(日) 구름 많음 25/33℃

단기 4343년 (음력 6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46호 1판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삼나무 그늘밑 피서 광주·전남지방에 연일 섭씨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장성군 축령산 휴양림을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삼나무 그늘에 앉아 무더위를 피하고 있다. /장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안없는 4대강 반대에 단체장들 잇따라 이탈"
"세종시 후속대책 없어 기업들 수도권으로 유턴"

강운태시장, 민주당에 쓴소리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대안없는' 4대강 사업 반대와 '미흡한' 세종시 후속대책에 대해서다. 한나라당처럼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직까진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강 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주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일부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예를 들어 영산강의 경우, 설치예정인 보를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준설깊이도 4m에서 2m로 줄인다거나, 총 사업비 중 수질개선 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거나 하는 등의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영산강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4대강 사업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세종시 후속 대책과 관련, '민주당이 클린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종시 이전을 검토했던 기업들이 또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관련해 주도권을 잡았던 만큼 그 후속 대책도 제시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ED를 비롯한 광산업 관련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투표를 통해 입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그리고 나머지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시장은 "대표로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입후보자들은 최고위원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가 민주당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당내 단합을 위해서라도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살·인·폭·염

순천·영광서 노인 2명 사망… 환자 3년새 2~3배 급증

정부, 야외행사 자제 당부

폭염이 심상찮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광주·전남지역 46개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폭염 피해 실태를 집계한 결과, 70대 노인 2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등 모두 27명이 폭염 확진환자로 진단됐다고 6일 밝혔다.

영광의 박모(여·70)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밭일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송모(77)씨도 지난 2일 순천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전남도는 또 허모(38)씨가 영광군에서 열린 '갯벌축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 폭염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는 등 광주·전남에서 이 기간 25명이 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는 이 기간 모두 77명의 환자가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57명은 폭염 확진환자로, 20명은 의심환자로 진단됐다.

폭염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열사병·일사병·열실신·열탈진 등으로 진료를 받은 폭염 환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주는 지난 2005년 120명에서 2008년 364명으로 3배 이상, 전남은 같은 기간 2배(612명→1216명) 가까이 증가했다.

6일 오후 광주시 5개 구와 전남 12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광양·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125개 시·군·구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부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각종 야외행사를 자제 또는 연기토록 하는 등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폭염에 예상되는 경우 행사 자제하거나 연기하는 한편, 일정상 여의치 않아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구급인력과 음료를 비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무더위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약자·독거노인 등을 위해 마을회관과 보건소, 자치센터, 노인정 등 전국 3만3397곳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냉방시설 점검 및 보완, 운영비 보조 등 행정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보건부 폭염질환 예방수칙

▲오전 11시~오후 4시 외출 자제
▲카페인, 알코올 음료 대신,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셔 수분 유지
▲커튼·천으로 햇빛 최대한 차단
▲하루동안 수차례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줄 것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면 옷 착용
▲가스렌지나 오븐 사용 자제
▲주·정차 차량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하지 말 것
▲문 닫힌 상태서 선풍기 틀지 말 것

추석연휴 전대 취소

민주, 과열 우려 일정 조정

민주당이 추석 연휴 시작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면 과열·혼탁 및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5일자 1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6일 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치르기로 한 전당대회 개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현희 대변인이 전했다.

비대위는 가급적 추석 연휴 전으로 전당대회를 추진키로 하고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장소 물색에 들어갔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이미경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제자유구역 강제 해제 안한다

지경부 "원하는 지자체만"

지식경제부는 6일 광양만권 7개 단위지구를 비롯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분 해제 검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광주일보 7월 29일자 2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다"며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불량교수' 적발 ▶3면 엄마표 건강식 ▶4면 휴가철 몸짱 만들기 ▶5면 여름 극장가 '센' 영화 ▶10면 Digital & Science ▶13면 양朴 내일 출격 ▶14면